

사고를 부르는 소운동장

서울 소운장 핸드볼, 테니스, 배구시설에 농구대까지



이 사진은 서울배움터 소운동장이다

지난 3월에 원곡원 교수연구동 옆 공간은 5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컴퓨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라는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본보에서는 이 시점에서 교수연구동 옆의 빈 공간이 어떻게 쓰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로 한다.

편집자

교수연구동 옆 공간에는 현재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그 중 이미 농구, 배구, 핸드볼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농구시설이 추가될 정도로 공간이 넓지 않아 어려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과 주임 김순종씨는 “원래 배구, 테니스, 핸드볼 3개지 등록에 관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농구시설이 추가될 정도로 공간이 넓지 않아 어려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과 주임 김순종씨는 “원래

의 여러 종목을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안전 사고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어봐 한 새내기 박지인(서양 서반아이 1)양은 “학생들이 미용객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정말 아쉽다”며 “있는 공간이라도 정말 안전하고 알 차게 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9년 대학당국과 종학생회

의 협의회에 의하면 대학당국은

학교주변의 광장을 구입하여 학교

부지를 넓힐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정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

다.

읍은 외래에서 살아나는 걸 그것

은 대학당국과 학교사람 이행에

달려있다.

명재권기자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등교교시에 이용하는 버스안에는 숨겨져 있는 쓰레기를 흔들 수 있다. 캔이나 광지봉지 등의 쓰레기를 등받이 전에 밀어넣어 이로 인해 천이 놓거나 경우도 있다.

대학의 양심찾기를 이런 작은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김희영 기자

쓰레기는 어디로?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 정규호 교수를 만나

“학생과 교수간의 견해 차이 좁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월 21일 수인교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335명 중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협의회장 선출하였다.

본보에서는 교수협의회장에 당선된 정규호(포르투칼이) 교수를 만나 교수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한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수·학생 협의회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들여보았다.

편집자

교수협의회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면 교수들은 학년대 나누어 훈련한 시기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제도권보다 민주주의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만든 연구회경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조정하기자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다른대학 교수협의회와 비교하여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을 벌일 것이며 아직 교수협의회회장인 우리

외대 동문들의 활약을 매스컴을 통해 잘 알릴 생각이다.

올해 충전선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개인적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 할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충전은 학사행정을 잘 하며 교수, 학생, 직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돼야 한다.

교수·학생 협의회 등 학생들과는 의사상이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과 우리가 눈을 할 때 학생과 함께 학생과 교수간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요즘은 예산과 달리 학생회의 요구사항이 마찰을 일으킬 경우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과 우리가 눈을 할 때 학생과 함께 학생과 교수간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명재권 기자



대책없는 도난사건

사물함, 자물쇠 등 도난방지 시설 확충해야



본보 지난호에서는 서울배움터에서 도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인터뷰를 다루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응인배움터에서도 도난당한 액수만 다른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고 일련의 사태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난 사건에 대한 예방책은 과연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것은 신문기사에 대한 편집자권리를 침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원 3주제의 암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기자들이 대한 직원们的 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인가

지난 9일(금)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지역학연구 실태지침’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총장과 지역대학원장 등 우리 학교사람들 이외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한국인의 비율이 7할이상이었다. 그런데도 모든 발언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영어로 말하고 그 영어로 동시에 읽어준다. 그런 모순에 대해 한 외국인이 문제제기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한국인인데 왜 영어로 말인하나?”며 “미국식영어를 사용하여 미국식으로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인상이다”라는 그의 말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한편 서울배움터에서 지난주 회제가 됐던 도난 사건은(본보 690호 참조) 지난 7일(수) 사건을 공개하겠다는 피해자의 경고가 있지만 “좋게 끝났다”는 피해자의 말처럼 조용히 미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배움터 내

건이 가장 찾은 학생회관과 도서관은 물론, 강의실 앞에도 사물함이 널리 네워져 있다. 학생회관이 있는 학교의 43%가 학생회관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예전에 달리 과방이나 자물쇠가 굳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건에 대한 대처方が 끊임없이 불리는 듯하다.

이같은 찾은 도난의 원인에 대해 선 양심의 부채가 본분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크게 지적했다.

그러나 양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학당국의 제도적인 대책이 수립해야 한다. 도난사



외대발전
캠페인1

외대 21C Vision

지금 외대에는 작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세계로!
21세기로!



6월 3일은 모교의 제2도약을 위한 모임의 날!

“세계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주역들을 양성해 온 외대 40여년!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우수 국책 대학으로 선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21세기를 향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내 및 연락처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

외대발전 캠페인 본부 Tel. 02)961-4402, (直) 02)3295-5709~2 Fax. 02)3295-570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발전캠페인본부

5·18 국제 학술심포지움

'기념비' 보다 우선돼야 할 '진실'

학살자 완전처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역사바로세워야

지난 8일(목) 오전 10시 한국정치학회와 5·18기념 주제로 5·18 학술심포지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5·18에 대한 최초의 국제학술회로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5·18에 관한 역사적 관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12·12, 5·18이 사법심사를 받고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정변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에 계엄선언 이후 일련의 사태를 내안으로 규정함으로써 5·18은 이제 역사가 되기 시작했다.

하치만 피고인 전두환은 최근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정변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법기록의 기정점과 무고한 국민의 회생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지를 두루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마자, 그들을 사면하는 주장이 광부로 뛰어 나오았다.

그러나 재판은 종업한 역사적 실현이고, 그 판결은 알려져 금방되어야 한다. 현정부에서 재판에 회복하고 이기기에 시민화를 만난다면 정치 재판이 있다면 비단을 헤아리울 것이다.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철 변호사는 "판결의 확정이 그 순간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결에 승복하고 진정한 반성의 뜻이 보이며, 일정 기간의 복역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일이다. 정치적 필요에 위하여 마음대로 결정되어 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정권의 칠저한 보도통제

5·18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간 5·18 일본의 가장 큰 부분은 침묵이었다. 사건 초기에 군사정권은 칠저히 보도를 통제하였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여러 단수를 통하여 공식적 발표 외에는 침묵을 강요하였다. 정권이 이해 만들어진 '폭도론', '暴虐 징지 집단론', '유인비어론' 등을 아직 5·18의 핵심을 계지 못했다.

특히 유인비어론은 공수부대의 민행을 선제공격으로 읽어들이며 대안 본분을 다른 집단에게 전기하기 위함이었다. 유인비어론의 최대 문제점은 광주시민들의 지역감정을 살피고 그 것을 5·18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시민들 중에 '유인비'에 믿고 이에 대해 기밀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나름대로 확실한 인연에 기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공수부대가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는 것이다. '개폐도 폐고', '개처럼 짖질 물고기 트럭에 실고' 등의 표현은 증인들이 어디나 발견된다. 신군부는 도저히 언어로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 치부를 기리기 위해 폐쇄를 늘어놓고 나가면서 언어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영향

광주민중항쟁의 성격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그것은 먼저 군부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광주민중항쟁은 무정부 형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록 구조를 갖는 군부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사태전개는 한국민주주의

신군부의 집권 의도였다. 10·26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5·17 비상계엄장치와 조치 등을 취하여 정권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은 학생시위를 민중 항쟁으로 변화되며 계란 결정을 번졌다. 15일 '서울여 회고' 이후 급격하게 학생시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에서도 광주지역은 16일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시내 3개 대학 및 전문 대학생들이 불平民으로 벌였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위기를 맞이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강상화에 빠졌을 때 광주는 오히려 민주화 요구를 광주화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과 광주학생사건에서 보여준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유신체제에서 다져진 이 지역 지식인들의 민주화 운동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

또한 김대중의 구속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격화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김대중 교수(시강대)

5·18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소집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당시 미국의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자 처벌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5·18 대체 기소 유에 결정을 내렸던 정권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무정부 투쟁이 전면화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5·18 바로 알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무엇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고려대학교 교수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아직도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이 절실히, 이를 위해서 교과서에 5·18 항쟁을 살입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광주항쟁이 광주민의 자국적인 주민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동학농민, 4·15 학생, 79년 부부항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광주항쟁이 그 혁명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또한 광주항쟁의 반민주화운동이 87년 6월 항쟁의 저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광주항쟁을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시켜야겠다.

또한 손교수는 "전 노씨 사법심사 과정에서

고령화된 호남문제를 참출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게 된

과정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호남문제를 우회하고 민주화 회의를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전고한 민주화 기초를 제공

하고 있는 호남의 정치의 중심부로 통합되어야

하며, 광주에 대한 해결은 한국민주주의의 공고

화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박광주(부산대) 교수는 5·18 광주민중항쟁이

신군부의 권력의지와 광주민의 민주화의지가

맞부딪침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박교수에

따르면 먼저 학생시위로 출발한 광주민중항쟁을

참혹한 유혈투쟁으로 변화되며 결정적 요인은

제1회 지역학연구 심포지움

지역학 위상부각,

발전방향 모색의 자리

지난 9일(금)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주최로 제 1회 지역학 연구 심포지움이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화와 지역학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계화와 한국', '지역학 교육으로 세계화'라는 두 가지의 소주제를 제작하고 심포지움의 전과정이 영어로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학교의 박상래교수, 알렉고든(Alec Gordon)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장희교수가 국내 교수로 참여하였고 국외 교수들은 네덜란드 대학의 이산분 교수, 위

신턴 대학의 클리크 서렌슨(Clark Sorenson) 교수, 멜리어웨 대학의 윌리엄 애보(William W. Boyer) 교수 등 세계화로 참여하였다.

1부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와 한국, 미국의 딴문명 사회에서의 지역학의 의미, 지역학의 대중화 입장까지 못한 개념, 지역학교육의 목적, 세계화의 물결에서 지역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대체적으로 국제화, 세계화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했다라는 시대인식에 의한 가운데 다양한 내용과 분야의 발제를 준비했다.

이후 질의 발언 시간에는 'NAFTA 이후 무역정책이 무너지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커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한 캐나다 교사의 질문,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너무 미국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우리학교 불리파 라파엘(Raphael Jacques)교수의 문제제기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역학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역학의 위상 그리고 지역학의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여러 문제제기에도 시 간관계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세계화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등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화와 지역학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등 내용적 깊이를 제고

케 하는 심포지움이었다.

김정희 기자



소금강자

불심검문

얼마전 우리학교를 전투경찰이 둘러쌌을 때 많은 학우들이 전경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와 가방수색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해의 곤경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들의 위압적 분위기 때문에 고보고 부수하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가방을 맡아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학습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자'를 짐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자신의 소속, 신분, 성명,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걸 막아서서 다짜고짜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고 게다가 가방수색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전경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더욱 기습을 부리는 때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하자.



문화유산의 해

-우리문화(80년대 민족문화)를 찾아

2. 민족시



울해의 시



참된 시작



“무슨 놈의 시가 그렇게 사납느냐”

김남주·박노해 등 전통적 민족문학의 전성기

글 순서

1. 민중기요
2. 민중시
3. 민중미술
4. 민속옷
5. 민중민화
6. 민중영화

80년대는 '시'의 시대요, 90년대는 '소설'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이가 있다. 어쩌면 독재로 인한 악압으로 터무니게 짓누르는 듯한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하니어의 탈출무리로 소설보다는 시가 적법화되는지도 모른다. 아니 표현의 귀결이었다.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묘사와 현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소설은 관념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양식이었는데 '상상'을 요구하는 시가 80년대에는 이들의 구이에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80년대 후반의 시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런 선입관은 베이아한다는 생각이 든다. 80년대 시는 어떤 소설보다도 사실적이고 세부적이며 강렬한 현실성을 표출하고 있다. 시대에 대한 친밀한 고민과 열정 또한

가득하다. 이른바 '사실주의 시' '민족민중시'라 불리는 시들이었다.

예술에서 인간의 삶을 탐구하여 형상화할 때 세부묘사와 생활적 진실성이 더불어 전형환경에 맞는 전현인들의 물어쓰기로 구현하는 내면화하는 '성작방법'이 바로 시사주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진실된 생활을, 특수한 인물이 아닌 아주 일반적이고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을 가장 철저하게 시에 반영했던 시가는 80년대이고, 이 방식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럼 당시 민족의 이해와 요구와 시인으로 만났을 것이다. 김남주는 79년 남전민 사건으로 수감되어 88년 가석방 조치로

● 주제 - 사회변혁(동일, 노동자, 농민, 교육)
80년대 후반의 시를 규정하는데 모든 형식과 양식을 충망으로 꽂혀온 주제는 바로 '사회변혁'이다. 6월 항쟁이라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흐름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각 분야에서 표출되는 과정을 빌게 된다. 그 과정을 '시'가 함께했다.

한편 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 노동자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졌다. 또한 우민한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농민에 대한 재생각과 작업자로써의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일선 교사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 지면서 80년대 후반의 시들은 위와 같은 관심의 시류를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각자 - 김남주, 박노해, 김지하, 기형도, 김경수, 도종환·안동현
그럼 앞의 시들을 어떻게 표현해 냈는지를 당시 활동했던 작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출소하기 전까지 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박노해는 김남주가 석방되고 2년 후 사노봉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경주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두 사람의 작품세계는 언뜻 비슷하면서도 상 달이 다르다. 사회를 비판하는 전투적 열정은 같지만 그들이 다른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인다. 김남주가 주로 조국을 이야기하는데 비해 박노해는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김남주가 스스로를 '전시' '투사'라 부르듯이 그의 시는 대단히 전투적이다.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이 중요한 한 요소를 이룬다. 좋은 시는 나쁜 사람들의 단순한 이분법적 발상,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말로 김남주 시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 '시의 요람 시의 무덤'이라는 시에서 그는 사람들은 자기 시를 두고 '무슨 놈의 시가 펠루루 짐작 페듯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사납느냐'고 말한다.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표현이다.

80년대 시들은 민족적 형식이 구체적으로 확립되며 시인을 예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김남주, 박노해. 그러나 80년대 두 사람은 한 번도 시으로써 만난 적이 없다.

한편 박노해는 노동계급적 입장이랄까 이후부에 상당히 고스란히 집착하고 있어 어린이 다른 부분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 정도였다. 그러나 '늦은 문인의 '늦은

스카프' 등의 작품은 자신의 시적영역을 상당히 넓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국을 문제로 등을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중요 한 조짐이다. 즉 그의 시가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서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달라 다르다. 사회를 비판하는 전투적 열정은 같지만 그들이 다른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인다. 김남주가 주로 조국을 이야기하는데 비해 박노해는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80년대의 문학계가 일구어낸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명실상부한 노동문화의 정착이다 할 수 있다. 민족문화가 그전까지 진보 지식인이나 전당에 의해 새로운 구성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그 노동자계급은 문학, 즉 노동문화에 80년대의 마지막 문학계가 일구어낸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의 하나가 김남주가 주로 조국을 이야기하는데 비해 박노해는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경향이다. 진보인텔리들이 주도해온 그들만으로 구성되었던 민족문화에 80년대 들어서 노동계급의 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둘째, 문학계, 우리의 민족이 보고 듣고 깨운 그런 생활속의 것들이 작품속에서 실체화 되기 시작한다. 김남주의 시 '손'을 보면 '이 손을 보게 친구 / 젊은 친구'라고 생김새가 짚볼에 구부리진 걸작 같네 / 거칠기는 용이와 상처 투성이로 놀이빠진 삼수나리나무 같고 / 쟁송에 사이가 벌어진 진술법의 손가락처럼 깔끌깔하네'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째, 지금까지 노동자 출신의 시인들은 노동계급의 삶의 고달픔, 또는 산업조건의 열악성을 많이 묘사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변호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자

얼마전 정부는 5.18광주 항쟁의 뜻을 기려 5.18광주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5.18묘를 성역화 할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95년에 국민들의 어른에 못 이겨 두 진짜 대통령을 속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80년대 후반의 시로 수천여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피의 역사는 청산되는 것일까요.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 시민, 학생들이 함께 5.18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18 추모식 심문 아니라 3월 20일집회 도중 전투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한 조대원 96학번 유재제를 학우와 노동계 같은 날 함께 거행됩니다. 법정기념일, 성역화 등으로 국민연륜을 잡재우고, 반란과 내란학살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사면해 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80년 광주

5.18 고 류재을 열사 노제

의 연장선상에 있는 항쟁의 거리에서도 하나의 우리 친구를 맘重温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맘重温에 간직이 있었었습니다. 그 때 나는 광주영령릉의 묘 앞에 또 다시 빽빽히 늘어선 이른바 묠민사에서 회생되신 열사들의 묘를 보면서 80년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되뇌어있었습니다. 광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율이를 이대로 보내기에는 같은 시력을 살아가는 우리의 외대인의 암心想이 하면서 않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재율이의 미지막 기는 길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율이의 의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어서 우리 하나가 재율이가 되어 4천만 국민의 희망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제성훈
<서양어대 학생회장, 서양·노어 4>

음반발매기념 꽃다지 열번째 콘서트

사람을 위한 노래, 사람과 같이 하는 노래



'음반발매기념 꽃다지 10번째 콘서트'를 마련했다. 꽃다지는 80년도 후반부터 노동자들과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해온 노래이다. 지난 공연 때 선보인 바 있는 새 열별의 주제곡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를 때는 모든 관객들의 환호와 환호로 공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관객들이 나중에 '온전히'를 외치면서 이곡을 다시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신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거의 모든 신곡에 관객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신곡들을 보면 몇몇 작품이 '강

가 전시에게' 등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을 부른 후 앞으로 같이 불러나가야 할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곡들이 하나둘씩 소개되었다.

'언덕길' '청호동, 활이바자' 등등..., 특히 '청호동합창단'은 '서울에서 펼쳐진 까' 노래를 불인 조제영씨가 만든 가사로 복날방에 고향을 두고온 청호동의 활이바자들의 풍일 열원은 담은 노래이다. 또한 구속된 철도노동자가 아내를 위해 만든 '집동네', 농의 형식을 빠고 있는 '강철의 노래' 등을 수 있다. 지난 공연 때 선보인 바 있는 새 열별의 주제곡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를 때는 모든 관객들이 나중에 공연장에서 더 이울리한 노래를 제공해 줄 필요로 있었다고 했다.

'노래만족 좋은 세상'으로 시작된 공연은 우리 현대사, 과거 그리고 올해의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투쟁의 현장에서 깊이 불렀던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고 있는 '비워처럼'으로 공연을 마쳤다.

이제나 기자

문화단신

서울

서어과 가정영화제

12일(월) 오늘부터 내일 13일(화)까지 서어과 주최로 가정 영화제가 우리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어과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제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주체를 맡은 서어과와 문화부강 박주연(서양·서민어) 교수에게는 '가장 적은 단위로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다. 가족들이 역경을 겪을 때는 그들의 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5일 내내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단계를 넘어서 변호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작된 영화는 5월 12일(월) 1시 : 카드로 만든 집 2시 : 스트립 맘마 13일(화) 4시 30분 : 조이락 클럽 6시 30분 : 디스보이즈 라이프

'고질건 고치자' 시리즈

① 문리수기 합시다

엄마!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오후쯤,
학생회관 뒷편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선
우리가 버린 쓰레기 하나하나
뒤집면서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고 계시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아저씨들을 편하게 해
드립니다.

우리 지킬건 지킵시다.

"서문재는 음식찌꺼기랑 같이 버리면 어떡애.
신문등지에 모아 버려야지"

엄마의 고함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의 가르침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글 순서

1. YS정권 개혁이 실패한 이유
2. YS정권의 정치방식
3. YS정권의 경제 정책
4. YS정권의 통일 정책

포장은 통일정책, 내용은 '분단 고착화'

통일의 길 흐린 북송 밀가루

"김정권은 식량지원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계속되는 군사훈련 → 한반도 긴장고조 = 남북관계 악화

행미다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은 경변이다. 우리정부와 주한미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이 운동으로 한반도의 지원이 불안정화되고 있으며 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때 한미연합군은 20만명이 참여하기까지 한 서방진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93년도에 실시되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국내에서도 팀스피리트가 '전체광공'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강한 비판론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대량으로 6개국이 참가해서 헤미나 실시하는 해병함 군사훈련인 힘파련도 도 헤마다 실시되었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

유엔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점령당한 섬을 탈환함으로써 끝난다.

또한 유사시 적 후방 실장부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적의 전쟁 지도체계와 전쟁 수행 능력을 미비시키는 독수리 훈련도 헤마다 실시되었다.

95년의 경우 95독수리 훈련의 일정으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헤미 양국의 해병대 병력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격훈련인 '성룡49훈련'이 실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11.22)

리훈련, 해상 및 삼무훈련 등에 분산 배치해서 실시하는 것을 겨우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94.10.21)

남북한에서 제 9회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

지 않으며 상대방을 협박하지 아니한다"고 불가침을

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군사경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연습의 틈틈이 평화봉사를 했던 3월과 6월에는

평화봉사를 했던 3월과 6월에는 평화협의는 명문도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죽은 항상 미국과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전에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YS 死년과 反 교육개혁 - ② 2차 개혁안



고학력저임금의 '현대판 노예' 양산목적

단순한 개편아닌 차별적 구조먼저 청산돼야

글 신 순서

1. 1차 교육개혁안
2. 2차 개혁안
3. 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
4. 3차 개혁안

1차 교육개혁안 발표 8개월만인 96년 2월 9일에 2차 교육개혁안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 단축은 끝이 끝이 미지막 끝을 단축하기 어렵다니하고 하지 않던가.

서장·경장·수필장·여행 등 출발한 1차 교육개혁안에 이어 2차 교육 개혁안 역시 사회적 차별구조 및 교육소득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놓았 다. 또한 1차 교육개혁안 발표후 각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채 현실을 도외시한 광크빛 정사진인이 전시했을 뿐이다.

이번 호에서는 2차 교육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혁안 발표후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산업대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서장·경장·수필장·여행 등 출발한 1차 교육개혁안에 이어 2차 교육 개혁안 역시 사회적 차별구조 및 교육소득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놓았 다. 또한 1차 교육개혁안 발표후 각계에서 지적한

2차 교육개혁안은 산업체입학 교육체제 구

축 스조·증·고 교육과정 전면 개편△법학·의학·신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교육관계법령 제재 개편 등을 그 끝자리로 하고 있다.

지난 1차 교육개혁안 교육의 기본틀을 째는데 그 중심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혁안은 1차 개혁 안에서 더워지지 못했던 주요과제들을 다했더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역점이 주어졌던 과제는 '직업교육체제'다.

실업고 체계가 다양한 유형으로 전환되고 전문대·개방대·기술대·성인대학 등도 2차 교육개혁안으로 유도되는 '신대학 제도'가 도입됐으 며 국가기술자격이 축소·통합됐다.

국민공용기본교육기간이 고교 1학년까지 10년

간으로 바뀌고 고교별 학습내용을 학교급별에서 학년제로 전환된다.

또 고교에서의 선택과목 확대△능력치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초등학교·영어도입 및 정보화 교육·교과·교류·문화·체육제 도입 등도 2차 교육개혁안에 담겨 있다.

현실무시한 '전시형' 제도개혁

그러나 선진국의 직업교육 사례를借鉴해온 개별화된 학제적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원가를 보여주겠다는 성급함이 앞섰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마련의 벽에 부딪쳤고 보면 결국 경기부진 미래에 대비해 전시형 제도개혁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시립학교제와 독소조합 제과 교육행정체 제 개편 등 현안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양한 실업계 고교 활성화와 경부지원 방안 등 인문계 전공선택 확대 구상 또한 그 수용능력을 뛰어넘어 차세대 고교생에게는 상당수에서 실업고 교육체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업고 고교생의 인문계 전공선택 확대 구상 또한 그 수용능력을 뛰어넘어 차세대 고교생에게는 상당수에서 실업고 교육체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산업화시대 신설을 통한 전문·기술·유인 학과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부님밖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시를 독립교과목에서 사회과목의 한 교과로 학제화하는 것은 명분이 뛰어지지 못해 국시화제의 많은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따라서 김영광부총장은 2차 교육개혁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차 교육개혁안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과 '신대학제도의 도입 방안'에 혼란이 드러나고 있다.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과 '신대학제도의 도입방안'은 일찌기 보기엔 실업고 고교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혀준 것처럼 작작하기 쉽다. 그러나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실업 고교가 인문계 고교에 전환하지 못한 고교생들의 직업훈련장 역할을 담당해온 것처럼 전문 대와 산업체를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나오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전체와 산업체를 일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직업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전문대학과 산업체의 교육과정을 살짝개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한 것, 산업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전문대 및 산업체와 커소사이를 구성해 교육 과정을 산업체가 원하는 대로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증거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들이 최근 후 원적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신대학제도'는 '고교원·제3자'의 기능성을 대량 육성하는데 '자본가'들을 도와줄 것을 불과하다.

그뿐 아니라 현재 고교에서 실시중인 '2+1제'도 '기' 학생들이 노동력 창출에 강박화되고 있는 것처럼 '신대학제도' 역시 근로자들을 '현대판 노예'나 '나쁜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개인의 직업교육과 실질적 성장을 기록·진학 및 취업에 활용하는 미명 아래 실시하려는 '직업 능력 인증제도'는 이는 뒷받침해주는 '현대판 노비문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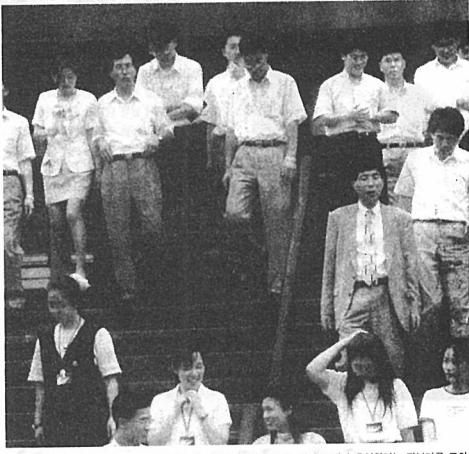
차별교육체제와 사회적 차별구조 및 교육소득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자체에 하나다. 때문에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취업·임금·승진 등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실업계 고교와 인문계 고교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일련의 학과·전문대학 및 산·공업체와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2차 교육개혁안은 직업교육기관의 단순한 개편만으로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복잡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교육개혁'이 제대로 펼쳐질 일은 불보듯 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영광부총장은 2차 교육개혁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김 삼 호

<한국대학육학연구소>



2차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신대학제도'는 '고학력 저임금'의 기능인력을 대량 육성하려는 자본가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일"이라며 경쟁권에 공로를 둘려.

<정>

…외대는 총장님 축사도 영어로 한다는 데…

이에 크로니클자 알아보자. 한국시립 월전 많은 지역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어만 써야 됐기 때문이라고.

우리끼리 영어 쓸려고 동시에 연예학원건새로 지은 것은 아닐텐데, 심포지엄 전에 '국제화'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데 어렵던지…

<회>

…용인배움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통문제로 충무체육관에 가지 못해 최후단 쏘는 소리와 함께 소리를 들고 최후단 날쌔까지 말고 홀비백산.

크로니클자의 훌륭값을 본 학생회 일꾼들 까지 허둥지둥 때는 마침 시종련 출범식날 밤이었다고.

그러나 알고보니 최후단 쏘는 소리와 함께 소리는 양정·배재고의 페스티벌 불꽃이 때 폭죽 쏘는 소리였고, 매개한 날씨는 쓰레기 태우는 날씨였다고.

크로니클자 개방신간 담하고 "수시로 학원 침탈하는 대한민국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경>

냉소의 종류

전면폐지만이 교육 살린다

무엇보다 2차 교육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교육개혁안에서 우려한 차별교육체제와 사회적 차별구조 및 교육소득 문제를 더욱 심화시

정 명 진

<서울산업대신문사 취재부장>

무엇보다 2차 교육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교육개혁안에서 우려한 차별교육체제와 사회적 차별구조 및 교육소득 문제를 더욱 심화시

았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2차 교육개혁안은 2000년 개방대학은 물론

대학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기술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둘러가 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다.

사범대 교육민주화주간 행사

오늘부터, 사범대 대동의 장 마련해

사범대는 오늘(12일)부터 16일(금)까지 나흘간을 교육민주화주간으로 삼아 교육과 사범대 대동의장을 진행한다. 86년 5월 10일의 「교육민주화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둘째주나 첫째주 일련인 이 행사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을 중심주제로 삽고 있다.

80년대중반 정치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이 담긴 교육민주화선언을 비판으로 그장을 진행한다.

15일(목)에는 앞으로 4주간 펼쳐질 사법제전에 대한 대학식과 더불어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진다.

마지막 날인 16일(금)에는 대안학교공연과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사범대학 선교교육과의 문제점 등을 알리는 선전전을 나흘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단신

용인 총여, 성교우 학교 16일 개최 "밝고 건전한 성 의식 제기했으면"

잔치가 펼쳐진다. 5월 16일(금)에는 5월 10일(금) 오후 6시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성교육 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성교육 학교는 사전행사로 성과 관련된 주제풀이, 풋기기, 열기 예정이다. 강연자는 김상아(내일신문 부설 성교육센터 사무국장)씨가 한다. 강연 후에는 토론하고 평론으로 향후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할지를 논의한다.

외교교육 목적 - 재정비와 해설 ①총론과 '진리' 편

머리말 (안병만 총장)

그간 우리 대학이 표방해온 교육목적 「진리, 평화, 창조」는 학문적 전문성과 미래 지향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얼마간 추상성을 띠고 있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교육목적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와 연구 성과 및 행정 효율을 높이고 학교의 발전에 혁신적인 통합토록 하자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의 새로운 교육목적 체계를 통해 그간 「교육이 넘」으로 통합되어 있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분리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연구와 교육, 학습과 행정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이 교육목적을 현실화할 것을 나아가면서 하는 바람이다.

에 따라 스스로 자기기를 원하는 삶과 진리 추구의 존중에 따라 사고하고 실천하는 열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자기 반성적 비판적 사고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는 단지 주어진 사회, 문화, 정치규칙에 따른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사고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사고는 스스로의 사고 방식과 기준의 관습과 체계 모두에 대해 열린 태도를 전제하는 사고이며, 새로운 대안과 지식 체계를 창출함으로써 세상을 살피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3) 공공무부 사한 탐구 자세

따라서 합리적 사고란 공공무부 사한 탐구 자세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삶과 학문 전반에 있어서의 「과학적 탐구 자세」라고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어대학교수는 평생을 진리 추구에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지적 탐구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의 하나로 삼는다.

2) 폭넓은 지식

(1) 폭넓은 지식과 전인 교육 모든 자주적 탐구인이 탐구의 목표로 삼는 진리와 지식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의 지적 학문적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침조작으로 변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적 문화적 자산에 대한 투철한 기지 이해와 미지의 터를 찾는 진정한 지적인 욕구와 개방적인 태도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

(2) 폭넓은 지식과 미래 사회의 세계인

한국의 국어대학교수의 교육목적은 우리 학교의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연구와 교육, 학습과 행정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이 교육목적을 현실화할 것을 갖추고자 하는 바람이다.

한국의 국어대학교수의 교육목적

한국의 국어대학교수의 교육목적은 우리 학교의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연구와 교육, 학습과 행정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이 교육목적을 현실화할 것을 갖추고자 하는 바람이다.

3) 정신과 윤리

(1) 정신과 윤리 확립 : 정신 세계와 그려고 무한 경계라는 흐름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정신대도란 이런 상황속에서 바로 스스로의 자주적 탐구를 하는 것이다.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철학인 「修身」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大學」의 말이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주연체로 맡겨지는 학교는 그 자체로 정신과 윤리를 갖춘 각 분야의 지성인을 의미한다.

4) 정신대도란의 대상

(1) 정신 대자 확립 : 정신 세계와 그려고 무한 경계라는 흐름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정신대도란 이런 상황속에서 바로 스스로의 자주적 탐구를 하는 것이다.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철학인 「修身」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大學」의 말이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주연체로 맡겨지는 학교는 그 자체로 정신과 윤리를 갖춘 각 분야의 지성인을 의미한다.

5) 정신대도란의 대상

(1) 정신 대자 확립 : 정신 세계와 그려고 무한 경계라는 흐름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정신대도란 이런 상황속에서 바로 스스로의 자주적 탐구를 하는 것이다.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철학인 「修身」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大學」의 말이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주연체로 맡겨지는 학교는 그 자체로 정신과 윤리를 갖춘 각 분야의 지성인을 의미한다.

6) 정신대도란의 대상

(1) 정신 대자 확립 : 정신 세계와 그려고 무한 경계라는 흐름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정신대도란 이런 상황속에서 바로 스스로의 자주적 탐구를 하는 것이다.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철학인 「修身」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大學」의 말이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주연체로 맡겨지는 학교는 그 자체로 정신과 윤리를 갖춘 각 분야의 지성인을 의미한다.

서울, 봄 농활 21개 마을에서 수행 농학연대, 김영삼타도 등 중심으로

서울매들리 별림 농민학생연대활동 등(농활)이 지난 29일(금)부터 4일(일)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진행됐다.

첫날 발대식으로 시작된 이번 봄 농활은 260여명이 21개마을에서 밭일, 고추모종심기 등의 별림농사

일돕기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농학연대, 김영삼타도 등을 중심으로 고리로 묶은 이번 봄농활은 미지 마늘 해단식에 이어 승강장에서 선전장을 펼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문화 사회연대대학원대학원회 위원장 조현진(서양·독일어 3)군

□ 스승의 날 맞아 전교조 신문사 기자인 김태수씨를 만나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고 국체기구연대의 강화와 민민문화의 활동을 모색하려 한다고 그 방향을 밝혔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턱살남론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차이에서 전조조를 개혁의 파트너로 받아들이 현장을 살아야 하는 것이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동역대학원, 국제 세미나 진행

용인, 동양학대 일일 첫집 열어

국제화의 애정 경애를 개관한 주요 대사 초청세미나'가 지난 7일(수) 오후 6시 동역대학원 월정관에서 열렸다. 국제화의 대사는 동시에 동역대학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차지감으로 미루었다.

이제 대체 동역대학 학생회장 강태종(미언어 4)군은 「일일 첫집이라는 학생들의 한 행사를 풀어 많은 동대 학우들이 천혜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일 첫집을 통해 모금한 액수는 21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동역대학 학생회장 강태종(미언어 4)군은 「일일 첫집이라는 학생들의 한 행사를 풀어 많은 동대 학우들이 천혜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김승근(시학 4)군은 「한번 복수 버티자를 인문대에서 복수 버티자를 열었다.

이날 일일 첫집에서는 과별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어가는 대로으로서 실천하는 교사를 제시하였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된 저지구요구와 체벌문제에 관해서는 「전교조차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상생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을 전제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전제의 차지감으로 탁자를 차운 학생들을 모았으며 차쁜 아니거나 쾌재, 계란 등 많은 음식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김학영 기자

을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는 교사 본인의 모습을 읽

